

대주건설 부도 '원인 무효'

“대한주택보증 지급제시한 당좌수표, 소멸시효 지난 수표” 금융결제원 “부도공시 사실상 무효”...사측 법적절차 착수

지난 10월12일 부도처리된 대주건설의 부도 원인 당좌수표가 효력이 없는 수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주건설측이 부도 원인 무효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대주건설과 금융당국 및 검찰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0월 11일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지급 제시를 한 1496억원짜리 대주건설 당좌수표는 수사결과와 대한주택보증측이 ‘당좌수표 지급제시 최종통보서’를 대주

건설측에 보낸 2009년 10월7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 백지수표 보증권 소멸시효가 지난 수표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대주건설은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 등 전국 아파트 경기가 활황일 2007년 당시 주택건설 촉진법상 청약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맺고 백지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급락 등의 영향으로 대주건설의 경영

이 악화돼 2008년 12월 아파트 분양권 및 모든 사업장의 사업권을 대한주택보증을 양도한 바 있다.

이후 대주건설은 2009년 1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실시한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금융권 퇴출 판정을 받고도 자산 매각 및 허재회 회장의 사재 출연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맺고 백지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급락 등의 영향으로 대주건설의 경영

대주건설측은 대한주택보증이 지급 제시한 당좌수표가 무효였음이 밝혀지자 부도 원인무효를 밝히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당초 당좌개설은행인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당좌 재개설 등 필요한 조치가 나섰다.

한국금융결제원 교환기획팀 관계자는 “지급제시한 수표가 원인무효인 만큼 부도공시는 사실상 무효”라며 “대주건설측이 당좌재개설 요건을 갖추고 거래은행이 거래정지처분 취소 요청을 해오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81년 창립한 대주건설은 2010년 시공능력 평가액이 2866억 원으로 전국 순위 85위, 전남 순위 6위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희망 전하러 산타가 찾아갑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공장장 김중웅은 22일 광주공장 연구동 이층에서 ‘2010 산타원정대 발대식’을 열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산타원정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전남 고용률 67.7% 전국 1위 영예(?)

농림업자 많아 실상은 ‘글썸’...고용률 고령화 심각

농림업종사자들이 많은 전남이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고용률은 67.7%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도 1.5%로 전북과 함께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신안군은 9개 도내 156개 시군 중 고용률 75.1%로 경북 군위군(56.7%)에 이어 고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는 전남지역의 경우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농림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고용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목포로 13.8%로 조사됐다.

반면 고용률은 5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55.8%로 경북 군위군(56.5%)과 함께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70.5%)였으며, 농림업 종사자 비중이 큰 신안군(20.1%)은 임금근로자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실업률이 3.4%로 전남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으며 여수(3.2%)가 뒤를 이었다.

취업자수는 여수가 1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10만8000명), 목포(9만7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암군은 거주지 기준 고용률이 65%이지만 근무지 기준으로는 10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집값 오르면 청혼 늦어지고 초혼 늦으니 출산을 늦어져 결국 고령화까지...

지면서 결혼을 늦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매입비용을 남성 측이 주로 부담하는데, 전세 등 주택가격 상승은 이를 마련하기 위한 남성의 청혼 기간을 늘려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초혼 시기가 늦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구조가 고령화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완화하려면 양육비 경감이나 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말뉴스

들이 1%포인트 높아지면 결혼은 835~1040건 줄고 결혼율은 0.18~0.42건 낮아졌다.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비용을 따져보면, 주택가격 상승은 주로 남성의 평균 초혼연

령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시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직 증가는 소득 불평등 확대에 이어지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

저출산과 고령화의 핵심 원인은 집값 급등과 고용 불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상호 연구조정팀장과 이상현 연구원은 22일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결혼 건수와 결혼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결혼은 330건 줄고, 결혼율은(15~39세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은 0.23~0.40건 하락했다. 실업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성탄절 선물은? 닌텐도 > 파워레이저 > 뽀로로

지난 3년간 대형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잘 팔렸던 닌텐도가 올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호도 1위에 올랐다.

22일 신세계 이마트가 5세 이상 어린이 700명에게 묻은 결과에 따르면 19.2%가 ‘닌텐도 DS’나 ‘닌텐도 Wii’를 성탄절 선물로 받고 싶다고 답했다. 닌텐도 다음으로는 ‘파워레이저’(6.1%), ‘뽀로로’(6.0%), ‘레고’(4.7%)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대형마트업계는 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마트는 ‘레고’ 인기 시리즈인 ‘레고 시티 리무진과 헬리콥터’를 특가에 판매하고 ‘뽀로로’ 등 캐릭터 상품을 많이 준비했다.

홈플러스는 26일까지 직수입 11종을 비롯한 완구 26종과 아동복을 70%까지 할인판매하고, 롯데마트는 29일까지 완구매장 토이저러스에서 다양한 기획상품을 선보인다. /연말뉴스

전화금융사기 노출 계좌 집중 단속

금감원, 금융회사와 공동...대출광고후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대출을 미끼로 타인의 기존 거래계좌를 확보한 뒤 사기에 사용하는 신종 수법이 발생한다고 보고 단속 대상을 신규 계좌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계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사기범들이 노숙자 등에게 신규 통장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매입해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국과 금융사기의 단속이 심해지자 사기범들이 먼저 대출 광고를 낸 뒤 문의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서류에 필요하며 기존 거래가 있는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내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6월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화금융사기 발생액은 751억원에 달했다. 이 중 67.9%인 510억원은 은행 내 전화사기 예방 전담직원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돼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았다. /연말뉴스

국민 40% “내복 입는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겨울철에 내복을 입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2일 서울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1019명을 대상으로 ‘내복 입기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겨울에 내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56.5%가 내복을 입었지만, 20대에선 27.0%만 내복을 착용한다고 답했다.

내복을 입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답답하고 활동하기 둔해서’(39.8%), ‘불편해서’(15.7%)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공간 관계자는 “전 국민이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3℃ 낮추면 국가적으로 1조8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뉴스

새 얼굴

“50만대 재편 본격화...글로벌 공장 도약”

김중웅 기아차 광주공장장

“올해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50만대 재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글로벌공장 도약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22일 부임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김중웅(53) 공장장(상무)은 “일등 품질로 고객 감동을 구현하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공장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교과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4년 현대정공에 입사해 1999년 기아차로 옮겨 화성공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공장 담당 등을 역임한 생산전문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6만원

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터스센터
-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 B1F 대연회장, 테백실

웨딩홀, 객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빌) | www.hotelarthall.co.kr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